

대정부 건의문(안)

김대중 대통령 · 오부치 총리 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8일 한·일 민간교류 8개단체 대표들은 기념강연회를 개최하고, 동 선언의 의미와 중요성을 재평가하면서, 이를 계속해서 구현해 나가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 할 것을 다짐하였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역협력 시대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새롭고 굳건한 협력체제가 재구축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국민간의 교류·협력은 물론 범 정부차원의 협력을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양국 정부에 대해 건의하기로 하였다.

1. 20년 전 양국 정상에 전망한 미래 아시아의 지역 협력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함께 인식하고 양국의 총체적 협력을 통하여 남·북 화해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2. 또한 공동선언이 강조하고 있는 양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정부 부처 간의 교류 협력체제도 일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
3. 그동안 한·일 양국 간의 「과거사」 인식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국 역사학자들의 공동연구등 양측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4. 한·일 양국 기업인들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제 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도록 후원하고 특히 남북 경협시대를 대비한 한·일 양국 경제협력 체제를 확대·강화해야 한다.
5. 제5세대 통신을 비롯한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공동연구·개발 협력과 첨단 과학기술 정보의 보안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6. 지난 20년 동안 양국 간의 문화교류와 국민교류가 괄목할 만큼 확대·증가하여온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양국의 차세대지도자교류 사업에도 정부 지원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7. 우리 한·일 민간교류 단체들은 이러한 역사적 과업에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새 시대를 열어나갈 「제2의 한·일협력선언」을 양국 정부가 채택하기를 건의한다.

2018년 10월 8일

한일협력위원회

한일포럼

한일문화교류회의

한일친선협회

한일여성친선협회

한일미래포럼

한일경제협회

한일문화교류기금